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AI 시대, 브랜드의 철학이 콘텐츠의 생존 좌우"

조준영 기자 | 승인 2025.08.08 09:19

디자인진흥원, 지역 실무자 대상 6주간 '브랜드 전략 집중 교육' 돌입
브랜드 없는 콘텐츠는 잊힌다...대전형 'AI+브랜딩' 실무 교육 시동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사진= 대전디자인진흥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콘텐츠에 철학과 방향성을 담아내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AI 시대를 관통할 브랜드 전략, 그 시작을 이번 교육에서 찾길 바랍니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이 지역 디자인 실무자들을 위한 'AI 기반 브랜드 전략 교육'의 본격 운영에 나섰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지난 7일 대전 유성구에서 '지역특화 디자인 역량강화 Creative Journey 교육'을 개강하고 6주간의 집중 교육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브랜드 없는 콘텐츠는 잊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AI 기반 콘텐츠 생산이 늘고 있지만 철학 없는 콘텐츠는 생명력이 짧고 시장에서 쉽게 잊힌다는 지적에 따라 대전지역 실무자들이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 AI 실습부터 전략 수립까지...글로벌 컨설팅사 강의 주목

교육은 중소기업 임직원, 디자인 실무자, 일반 시민 등 브랜드 전략 구축이 필요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수강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의 두 배를 넘기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과정은 오는 9월 20일까지 총 6주간 운영된다.

특히 글로벌 B-Corporation 인증을 받은 브랜드 컨설팅사 '더브레드앤버터(The Bread and Butter)'가 교육을 맡았다. 이들은 'Betterment Branding' 기법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 트렌드 분석 ▲브랜드 자산 정립 전략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AI 콘텐츠 프로토타이핑(Midjourney·ChatGPT 활용) 등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 원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툴 실습이 아닌 AI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중심 브랜드 전략을 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 디자인 역량강화 Creative Journey 교육'을 개강하고 6주간의 집중 교육에 들어갔다. 과정은 오는 9월 20일까지 총 6주간 운영된다. [사진= 대전디자인진흥원]

◇ 진흥원 "지역 실무자 브랜드 역량 내재화 도울 것"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 실무자와 중소기업의 브랜드 역량 내재화, 지속 가능한 디자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실무 맞춤형 디자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AI는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도구일 뿐이며, 콘텐츠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며 "이번 교육이 기술을 넘어서는 디자인 철학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조준영 굿모닝경제 기자



조준영 기자